

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낙농육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의 '94년도 활동을 살펴보면

○ UR제협상, 국회비준거부 요청 및 활동추진(2월 1일 대학로 농민대회)

○ 축산관련 허가권 농림수산부 이관 건의

○ 수입개방 대비 검역기준 강화 마련 건의

○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

○ 낙농육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안 마련 제시

○ 자가배합사료의 부가세 철폐 건의

○ 한우협동조합 설립인가 촉구 등등.....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해온게 사실이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과 부족한 인력으로 제몫이상을 감당한 점에 대하여 찬사와 고마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 낙농육우관련 기술과 정보제공을 좀더 확대하고
○ 전국낙농육우인들 모두를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힘을 결집시키고

○ 정책개발에 일선 양축가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며 결과 통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욕심을 내어 보기도 한다.

낙농육우인 여러분!

특히 육우인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가입하고 계십니까?

년간 20,000원의 협회비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 모든 일들을 대신해 줄 것으로 마냥 믿고 있습니까?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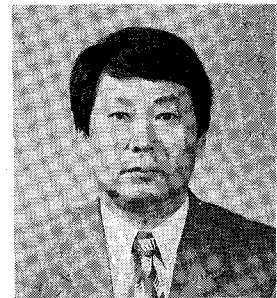
그런 후에 낙농육우협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우리육우인들의 강력한 대변인이 되고 정부의 압력단체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고 전진하는 세계속의 낙농육우인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낙농가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의 할일을 찾아야 할 때



윤 민 호
본회사사. 지리산낙협장

지난간 3년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라는 아쉬움이 가슴속에 먼저 와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를 보이는 사회환경과 외부 정세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해 왔을까?

마누라와 자식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꿔보자고 절규하던 어느 기업인의 말처럼. 철저한 인식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낙농가들은 그동안 얼마나 시대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여 왔는가?

임기를 마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답답할 뿐이다.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수입개방의 최고 피해자가 우리 낙농가일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 낙농 제품의 수입은 거의 모두가 개방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수년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낙농진흥법은 우리 낙농가들과 낙농육우협회의 현 주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료관리법, 초지법, 산림법, 건축법, 폐기물처리법등등 개선해야 될 많은 법규와 사료곡물의 관세와 부가세, 불합리한 원유의 검사제도등 할일은 태산같으나 우리는 무엇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온 것이 없다.

환원유와 멸균유의 문제만해도 우리는 우리의 목을 죄고 우리자신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커다란 문제이나 우리자신들은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낙농의 어려운점이나 양으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낙농진흥법의 개정문제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마치 일부 지도층의 해계모니 쟁탈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도층이 정말 해계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낙농가들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전업이 속출하고 있고, 유제품은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가의 채산성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낙농진흥회의 상설이나 비상설이나하는 문제가 우리 낙농가들의 존립을 좌우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낙농가들이 아직 배가 불러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지나간 3년동안 우리협회는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우리협회를 이끄는 임원들의 성숙치 못한 자세와 협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문제때문에 낙농

우리 협회나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때이다. 이제 그동안 우려했던 모든 것은 거의 다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고 단지 원유가 남아서 처리가 곤란한 사태만이 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모두의 가슴을 열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심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과 이해를 가지고 낙농가들의 중지를 모아가고 우리의 할일을 찾아가야 할 때인것 같다.

가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적인 예로 수년동안 논의하여 제정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했던 낙농진흥법이 협회에서는 원칙이 세워졌지만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타난 것은 법안자체의 국회통과가 저지될 정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버렸다.

우리 협회나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때이다.

이제 그동안 우려했던 모든 것은 거의 다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고 단지 원유가 남아서 처리가 곤란한 사태만이 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모두의 가슴을 열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심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과 이해를 가지고 낙농가들의 중지를 모아가고 우리의 할일을 찾아가야 할 때인것 같다.

이러한 부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낙농가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자조금제도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모두의 가슴을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진정한 이나라의 낙농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건실한 협회로의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있으면 한다.